

한나라 대선후보 이명박 확정

범여권 “검증은 이제부터”

“추 선거법 위반 전력·재산 의혹 등 철저 따질 것”

범여권은 20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자 “한나리당이 대선패배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그간 고민해온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범여권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진행됐던 검증작업을 ‘면죄부 주기’로 규정하고 이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작업을 진행해 한나리당에 일방적으로 쏠려 있는 선거구도를 명실상부한 ‘일대일’ 구도로 돌려놓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여권 대선 예비주자들은 이 후보가 경선에서 드러난 도덕 불감증과 각종 의혹 등으로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손규현 전 경기지사 측의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우리에게 이명박 후보가 더 쉽다”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지금까지 ‘도 대통령 대 이 후보’ 구도에서 이 후보의 흥미로운 숨겨져 왔지만, ‘손규현 대 이명박’ 구도가 되면 ‘클린 대 부패’의 구도가 선명하게 대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리당 대선후보로 이명박 후보를 꺾고 반드시 정권을

명박 전 시장이 확정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은 어제의 전파자, 오늘의 거짓말쟁이, 내일의 범법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낡고 부패한 이명박 후보에 맞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장관 캠프에서 정책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양형일 의원은 “주후 대선 과정에서 국민은 진실을 보게 될 것이며 범여권 적자 후보인 정 전 의장이 결국 이 후보를 물리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전 총리 캠프 측의 서갑원 의원은 “선거법 위반에 국회의원직 상실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등 이명박 후보는 도덕적으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 자리를 맡기에는 자격 미달”이라며 “특히, 이 후보의 재산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천정배 의원도 논평을 통해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전력이나 각종 의혹 그리고 역사의식을 볼 때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내가) 개혁적인 비전과 정책으로 이명박 후보를 꺾고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 측은 “이명박 후보를 암도할 수 있는 도덕성과 국정경험이 있다”며 “국민은 대선 과정에서 화합과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한 전 총리를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미애 전 의원 측의 김정현 공보 특보도 “이번 경선을 통해 이명박 후보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본선 승부에서 범여권 대통합 후보가 더욱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이며 주미애 후보가 결국 이 전 시장을 낙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연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축하 드린다. 그러나 검증은 이제부터”라며 “검찰조사에서도 드러났듯 한나리당내 검증은 엄터리었던 만큼 도덕성과 미래비전을 철저히 검증하면서 당당히 경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내 검증이 연습에 불과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민의 검증을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환호…침통…

20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나리당 전당대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후보로 확정되자 지지자들이 기발

/연합뉴스



파배한 박근혜 전 대표측 지지자들은 낙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샐러리맨 신화’서 대선 후보까지 파란만장

■ 이명박 후보는 누구

한나리당의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경북 포항 출신의 ‘샐러리맨 신화’ 주인공이다.

이 후보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노동자 이충우씨의 4남3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으나 1945년 회장이 됐으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인천제철 등 현대 계열사 10여개사의 최고경영자와 함께 아버지 고현인 포함으로 이주했다.

이 후보는 중학교 시절, 공부는 잘했지만 집안 형편상 고등학교 진학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3년 내내 전교 1등 하면 장학금을 받는다는 조건

으로 동지상고 야간부에 진학했다. 전체 수석으로 고교를 마치고도 대학 진학을 할 수 없던 그는 청계천 헌책방에서 구한 참고서로 공부, 고려 대 삼과대학에 입학했다.

이 후보는 3학년 때 삼대 학생회장에 당선돼,

한·일 국교정상화를 반대하는 6·3 시위를 주도했다가 서대문형무소에서 4개월을 복역했다.

이 후보는 현대건설 입사 2년도 안돼 대리, 5년 만인 29살에 이사, 12년 만인 35살에 사장에 당선되면서 화려하게 복귀했다. 뛰어난 서울 경영, 청계천 복원, 시청 앞 광장 조성 등이 그의 업적으로 이야기된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자취에는 적지 않은 오점이 남아있다. 노조·동성애자·장애인 등 소수·약자에 대한 비하성 발언과 ‘서울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말인 등 찾은 설화를 일으켰다. 일부 현대 출신 인사조차 그의 재산증식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BBK 관련 의혹과 차명재산 의혹 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그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 후보는 3학년 때 삼대 학생회장에 당선돼,

95년 지방선거 때 민자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정원식 전 국무총리에게 패배했으며 96

李 후보 돋되 선대위원장은 맡지 않을 듯

■ 경선패배 인정 박근혜 향후 거취는

한나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박근혜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패배가 확정된 뒤 행한 연설을 통해 일단 경선 승복을 약속했다. ‘이름다운 패배’의 길을 선택한 박 전 대표는 앞으로 어떤 진로를 모색할까.

대선후보 경선 과정이 치열했던 만큼 석패한 박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대선 체제에 본격 진입하는 한나리당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패배를 인정했다.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며 깨끗하게 경선 결과를 승복했다.

이런 언급으로 미뤄 한나리당이 향후 대선 체제로 본격 전환할 경우 박 전 대표 역시 어떤 식으로든 이 전 시장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면 경선 전 이 전 시장이 내놓은 ‘선대위원장’ 제안을 박 전 대표가 당장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반면 박 전 대표 주변에서는 선대 위원장까지 맡아서 확실하게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정권 교체”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영·호남을 누비며 10년 만의 정권교체 행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1971년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 대선 경선. 김영삼 후보가 김대중 후보에게 막판 역전패를 당했지만 김영삼 후보가 전국 지지유세를 벌였다는 얘기도 일례로 거론된다.

이명박-박근혜 협력 체제가 가능되더라도 대선 끝까지 순항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특히 향후 대선

정국 상황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올 수 있다.

대선 국면이 본격 시작되면 범여권의 이 전 시장에 대한 총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의혹이 확인되거나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전 시장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

의 상황에서 후보교체론, 낙마론이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인의 의지와는 별도로 다시 박 전 대표가 대안으로 거론되면서 새로운 선택을 암복을 낼 수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비록 패했지만 얻은 성과도 적지 않았다. 특히 경선 투표의 끝장을 연결과 조직력의 열세를 딛고 당원, 대의원, 국민 참여선거인단으로 구성된 직접 선거인단의 표에서는 이 전 시장

을 앞서며 밀바다 당선에서의 대단한 저력을 확인시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승가빠른 경선 개표 현장

1년 넘게 계속된 한나리당 대선후보 경선이 20일 개표 전당대회를 마지막으로 지난했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막판까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경선 과정이었지만, 이날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 당선이 확정되자까지 개표 상황은 그 자체가 손에 땀을 쥐어 하는 한편의 각본 없는 드라마였다.

특히 전날 70.8%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데다, 이명박-박근혜 양 진영 모두 승리를 달리 드러낸 것, 일각에서는 선거인단 투표수에서 최대 5천표까지 앞서고 있다는 소문이 돌며 그간 예고해 왔던 ‘대역전 드라마’를 기대하기도 했다.

이어 개표기가 설치된 행사장 중앙에 캠프측 관계자와 기자들이 모여 양측 참관인이 전해오는 투표결과를 거의 ‘실시간 속보’ 수준으로 접

수했으며, 박 전 대표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 개표가 초반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전 시장측에서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시장이 암도적인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지역에서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우세지역으로 분류

했던 부산, 경기지역에서도 박 전 대표에 뒤지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 전 시장측 인사들은 ‘설마

양진영 개표진행 따라 환호·한숨 교차

朴측 초반 우세 소식에 ‘대역전 드라마’ 기대하기도

대표측에서 먼저 조심스럽지만 자신감에 찬 웃음을 내비친 것, 일각에서는 선거인단 투표수에서 최대 5천표까지 앞서고 있다는 소문이 돌며 그간 예고해 왔던 ‘대역전 드라마’를 기대하기도 했다.

이어 개표기가 설치된 행사장 중앙에 캠프측 관계자와 기자들이 모여 양측 참관인이 전해오는 투표결과를 거의 ‘실시간 속보’ 수준으로 접

수했으며, 박 전 대표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 개표가 초반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전 시장측에서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시장의 암도적인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지역에서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우세지역으로 분류

했던 부산, 경기지역에서도 박 전 대표에 뒤지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 전 시장측 인사들은 ‘설마

이전에 예상치 못한 드라마’로 기대하기도 했다.

결국 오후 3시께 ‘현장 투표에선 이 전 시장이

박 전 대표에게 800여표(실제로는 400여표)

으로 뒤지지만, 여론조사 결과 2천400여표차

앞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양측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렸다.

이후 박관용 선관위원장이 이 전 시장의 후보

지명을 공식 선언하자, 이 전 시장측은 일제히 환호를 올렸으나 박 전 대표측은 아쉬움의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경선 드라마는 승가빠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연합뉴스

● 양진영 개표진행 따라 환호·한숨 교차

朴측 초반 우세 소식에 ‘대역전 드라마’ 기대하기도

대표측에서 먼저 조심스럽지만 자신감에 찬 웃음을 내비친 것, 일각에서는 선거인단 투표수에서 최대 5천표까지 앞서고 있다는 소문이 돌며 그간 예고해 왔던 ‘대역전 드라마’를 기대하기도 했다.

이어 개표기가 설치된 행사장 중앙에 캠프측 관계자와 기자들이 모여 양측 참관인이 전해오는 투표결과를 거의 ‘실시간 속보’ 수준으로 접

수했으며, 박 전 대표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 개표가 초반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전 시장측에서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시장의 암도적인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지역에서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우세지역으로 분류

했던 부산, 경기지역에서도 박 전 대표에 뒤지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 전 시장측 인사들은 ‘설마

이전에 예상치 못한 드라마’로 기대하기도 했다.

결국 오후 3시께 ‘현장 투표에선 이 전 시장이

박 전 대표에게 800여표(실제로는 400여표)

으로 뒤지지만, 여론조사 결과 2천400여표차

앞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양측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렸다.

이후 박관용 선관위원장이 이 전 시장의 후보

지명을 공식 선언하자, 이 전 시장측은 일제히 환호를 올렸으나 박 전 대표측은 아쉬움의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경선 드라마는 승가빠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연합뉴스

대표측에서 먼저 조심스럽지만 자신감에 찬 웃음을 내비친 것, 일각에서는 선거인단 투표수에서 최대 5천표까지 앞서고 있다는 소문이 돌며 그간 예고해 왔던 ‘대역전 드라마’를 기대하기도 했다.

이어 개표기가 설치된 행사장 중앙에 캠프측 관계자와 기자들이 모여 양측 참관인이 전해오는 투표결과를 거의 ‘실시간 속보’ 수준으로 접

수했으며, 박 전 대표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 개표가 초반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전 시장측에서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시장의 암도적인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지역에서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우세지역으로 분류

했던 부산, 경기지역에서도 박 전 대표에 뒤지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